

#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

### 민주당안으로 환노위 법안소위서 지난 15일 가결... 국회 측 신청 안건조정위 거쳐 사용자, 합법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등... 야권, 내일 전체회의서 처리 추진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아래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

당 소속 위원들이 참여한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요청을 한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를 하면서 나가는 건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나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했고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공청회 등을 통해 토론했으며 네 차례 소위를

통해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충실히 임하지 않는 일을 반복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측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결국 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밖에 없다고 본다"며 "안건조정위를 요구하고 다시 나가버린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전체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그 때에도 국민의힘이 뭉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제사범위원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고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견�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 거부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시 또 국민의 요구를 받아 지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첫걸음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은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산업 평화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시장과 교섭해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고 진전된 법"이라고 평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실제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개를 했을 때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계속 제공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에 더해 "안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요청을 하고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차고 나간 건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처리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앞서 환노위 법안 소위는 2월5일 해당 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여당 측 신청으로 이날 안건조정위를 거쳤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서 '노동조건 결정' 부분을 '근로조건'으로 변경,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넓히는 게 민주당 측 평가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대립 법안 일방 통과 방지 차원의 제도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에 부치게 된다. 야당 측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반대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뉴시스

### 한미동맹 70년 결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여야, 포괄 전략 동맹 국회 차원 뒷받침 다짐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 동맹 관계의 효용성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성실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 법·제도적 뒷받침을 다짐하고 있다. 또 △북핵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맞서 양국 정부에 효과적 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대북 대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경제 안보 동맹이자 기술 동맹으로 핵심·신용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라고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시스

###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개혁 논의 기획위원회 구성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진이 지난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야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20일에는 창립 정치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모임 운영진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제도 개혁방안 및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동력 있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기획위는 정성호·전철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위는 국민의힘 정당 대회가 끝나는 내달 8일 이후에 전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정치개혁 논의 과정을 추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의정 및 대통령실과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며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6월 원외 지역위원장과 시민사회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20일에는 여야6개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초청해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전환행동 주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 확정... 고창군민과 약속 지켰다

민주 윤준병 의원 "호남권 드론산업 중심지 성장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021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2억원)를 통해 2022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총 7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 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인증 및 교육·자력 공간으로 구상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180억원을 투자해 활주로 조성, 건축공사, 장비 구축 등의 일체를 조성한다. 고창군은 주변 부자거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구축하게 된다.

고창군에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가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그 동안 경비행장 조립공장 유치 등 항공 사업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나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고창군에 유치됨으로써 고창군민의 항공에 대한 열망이 30년만에 드론사업으로 풀릴 수 있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창에 있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와 연계하면서 드론 전문특화교육으로 영농·산림·재난관리 등 농촌의 드론 수요에 맞는 드론운용 실무자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창군민들에게 '드론 등 항공 관련 산업 육성·고창 강호항공고와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고창군민과의 약속인 고창군 내에 드론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당선인 신분아래 2020년 4월부터 약 3년의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북도와 고창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021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남권 드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그간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 못지않게 열정을 모아야 고창군민들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의 고창군 유치를 계기로 우리 고창군이 호남권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여나간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지난 한 해 성과, 지지해주신 군민 덕분"

민주 안호영 의원, 완주군 의정보고회 일정 시작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각각 완주 고산면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오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 등 당원 등 완주군민 3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안호영 의원은 "2022년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박의 책임과 권한으로 전라북도 대도와의 새 지평을 여는 일에 주력했다"라며 "7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등 2022년 한 해 성과는 모두 이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완주군민 덕분"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한 우수수상차·연료전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국가가 대응기금을 조성해 해당 지역들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022년엔 '전북특별자치도법' 최초로 대표 발의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완주=이종복기자

### "K콘텐츠, 지금 미국서 인기몰이 중 아시아 제1관광 목적지 발돋움 할 기회"

민주 김윤덕 의원, 관광공사 뉴욕지사 등서 애로사항 청취 뉴욕 스카우트 연맹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도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15일(뉴욕 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중의원의회의 일정을 마친 후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뉴욕한국문화원 등 현지 소관기관에 방문해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등에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콘텐츠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으면 한다"며, "K 콘텐츠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미국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아시아 제1의 관광 목적지로 발돋움할 기회"라며 박재서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에 일선의 역할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뉴욕한국문화원에 방문한 김 의원은 "세계가 한국을 글로벌 무대로 인식하고 한국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먼 이국 땅에서 본인의 업무 충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뉴욕한국문화원을 지원하는 일에 문제위 간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인유학생들과 함께 컬럼비아 대학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학생들의 현지 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지에서 유학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야를 함께 영보하고, 미국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시절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

으며, 한 블록만 걸어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선진 교육문화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며, "우리 전주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터스트 사업 및 중앙도서관 분관 설치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시의 소감을 밝혔다. 다음날인 16일 김윤덕 의원은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서기 뉴욕 스카우트 연맹 대표를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조 바이든, 포드, 케네디 대통령 등 정계, 문화 예술계를 막론하고 이루 해낼 수 없이 많은 유명 인사들이 스카우트 대원 출신으로 청소년기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시켜왔다"며, "오래전부터 미국은 스카우트 대원 출신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과정을 조금 보태면 스카우트 대원 출신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미국 내 스카우트의 위상을 설명했다. 이후 뉴욕 스카우트 연맹 Saroya Friedman-Gonzalez 회장과 Thomas S. Bain 부회장을 만난 김 의원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드넓은 황금의 땅 새만금에서는 172개국의 청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한 구슬땀이 지금도 맺어지고 있으며, 스카우트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뉴욕 스카우트 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에 뉴욕 스카우트 연맹은 "이번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슬로건인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가 현실이 되고, 세계 청소년들이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갈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진이 지난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야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20일에는 창립 정치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모임 운영진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제도 개혁방안 및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동력 있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기획위는 정성호·전철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위는 국민의힘 정당 대회가 끝나는 내달 8일 이후에 전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정치개혁 논의 과정을 추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의정 및 대통령실과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며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6월 원외 지역위원장과 시민사회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20일에는 여야6개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초청해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